

시사원정대 2021-8 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 주 수업 계획표

1 주 수업 내용

2 주 수업 계획표

2 주 수업 내용

3 주 수업 계획표

3 주 수업 내용

4 주 수업 계획표

4 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커버스토리

최신 시사뉴스에 대한 깊이 있는 배경설명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해설기사.

매달 하나의 시사주제를 골라 쉽고 자세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연관된 배경지식을 알려줍니다. 시사주제를 탐험하고 난 뒤에는 재미가 팡팡 터지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전개합니다.

2) 시사뉴스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3) 창의융합탐험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다룹니다. 과학, 한국사, 경제, 시사이슈, 국제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습니다.

4) 문화예술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한 코너.

문화예술탐험에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까지 폭 넓은 문화, 예술 주제의 기사가 실립니다. 매달 추천도서가 제시되어 함께 책을 읽은 뒤 토론해볼 수 있습니다.

5) 리딩북

신문의 사실·칼럼을 10대 눈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2 개의 사실·칼럼을 쉽게 이해하며 읽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영어로 작성된 기사와 그 해석도 담겨 있습니다. 생생한 사진과 함께 국제 뉴스를 읽다 보면 상식을 키우는 것은 물론, 어휘·발음·독해·문법 능력도 향상됩니다.

6) 체험학습 비밀미션

체험학습 주제 고르기부터 장소 찾기, 체험 보고서 쓰기까지 한 번에 똑딱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1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8월호 1주 (70분)		
학습 목표	우리나라 배달의 역사와 진화에 대해 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 배달의 모습을 예측해본다.		
활동 초점	- 커져가는 배달 시장에 대해 배운다 - 배달 로봇과 드론 등 미래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한다.		
구분	2주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34~41 커버스토리 - 지금은 배달 시대 - 진짜 '배달'의 민족 - 배달이 진화한다 - 배달의 미래 우리가 이끈다!	- 배달 - 자율주행 배달 로봇 - 배달 드론	20
	- 2~7 맞춤칼럼 선진국 대한민국	- 선진국 - 노인·청년·여성 불평등	40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달 수업 예고	- 과거·현재·미래에 따른 배달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배달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자.	5

[2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8월호 1주		
학습 목표	우리나라 배달의 역사와 진화에 대해 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의 배달의 모습을 예측해본다.		
활동 초점	- 커져가는 배달 시장에 대해 배운다 - 배달 로봇과 드론 등 미래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한다.		
구분	2주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 34~41 커버스토리 - 지금은 배달 시대 - 진짜 '배달'의 민족 - 배달이 진화한다 - 배달의 미래 우리가 이끈다!	- 배달 - 자율주행 배달 로봇 - 배달 드론	15
마무리	다음 달 수업 예고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 활동 안내	- 과거·현재·미래에 따른 배달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배달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자.	2

커버스토리 지금은 배달 시대

<어휘 Up>

기피: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함.

유서: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까닭과 내력.

<발문>

1. 배달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적어보자.
2.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상황과 함께 기억에 남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

<교사 참고자료>

“생필품 10분 배달”... 유통업체들 ‘속도전’

‘배달 예상 시간 10~15분.’

쿠팡이 음식배달플랫폼 ‘쿠팡이츠’를 통해 최근 서울 송파구 일부 지역에서 시작한 식품, 생필품 즉시 배송 서비스 ‘쿠팡이츠 마트’ 화면 상단에 있는 문구다. 2019년부터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선보인 ‘B마트’와 유사한 서비스다. 아직 송파구 내에서도 석촌동과 송파1동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지만 이를 지켜보는 유통업체의 긴장감은 높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면서 10~15분이라는 ‘배달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의 물류 인프라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퀵커머스 경쟁이 본격화하면 유통업계 지형이 또 한 번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쿠팡이츠 마트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직고용 라이더’ 모집도 시작했다. 3개월 계약직인 ‘쿠팡이츠 친구’는 월 25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배송 수단인 이륜차와 유류비,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주5일 근무와 4대 보험 가입, 경조사비 지원 등 복리후생도 붙는다.

기존 쿠팡이츠 배달원인 ‘쿠팡파트너’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배달대행사나 플랫폼 자

체와 계약을 맺는다.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지만 고정 수입은 없다. 그 대신 언제든 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탈 수 있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선 배달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쿠팡이츠 친구’ 직고용을 두고 쿠팡이 10~15분 내 배달하는 퀵커머스를 위해 수급이 불안정한 일반 라이더 대신 직접 고용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은 ‘로켓배송’ 도입 당시에도 업계 최초로 배달기사를 직고용해 서비스 속도와 질을 높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건 배달’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린 쿠팡이츠 서비스처럼 쿠팡이츠 마트도 30~60분이 소요되는 기존 B마트보다 압도적인 배달 속도를 내세우며 확장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 마트의 물류센터(다크스토어) 위치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인근으로 알려졌다. 송파구는 쿠팡 본사가 있는 데다,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 등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어 퀵커머스 테스트베드로는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퀵커머스’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다른 유통업체들도 퀵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위해 배달 속도를 높이거나 배달 범위를 빠르게 늘리고 나섰다. GS리테일은 최근 배달 전용 주문 모바일 앱 ‘우달(우리동네딜리버리)’을 통해 ‘49분 번개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GS수퍼마켓 인근 지역에 한해 49분 내 배달하는 서비스로 기존 ‘1시간 배송’을 11분 단축시킨 것이다. CJ올리브영은 2018년 말 선보인 화장품 3시간 내 배송서비스인 ‘오늘드림 빠른배송’의 평균 배송 시간을 올해 상반기 45분으로 줄였다.

롯데쇼핑은 롯데슈퍼가 지난해 11월 잠실점에서 시작한 ‘퇴근길 1시간 배송’ 서비스 대상 지역을 올해 초 서울 강북과 경기, 인천 일부 지역으로 확대했다. 퇴근길 1시간 배송 서비스는 오후 4~8시에 주문하면 1시간 내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23개까지 대상 점포가 늘어났다. 이강욱 보스턴컨설팅그룹 소비재유통부문 파트너는 “음식 배달로 촉발된 시장이 다양한 영역의 퀵커머스로 확장하고 있다”며 “물류 거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속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1-07-09]

커버스토리

진짜 '배달'의 민족

<어휘 Up>

명성: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

상고시대: 역사의 시대 구분의 하나로,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한에서 가장 오래된 옛날의 시대.

어원: 어떤 단어의 근원적인 형태. 또는 어떤 말이 생겨난 근원.

지칭: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일. 또는 그런 이름.

<발문>

1. 조선 후기 황윤석이 시켜 먹은 평양냉면은 어떠한 형태로 배달되었을까? 상상하여 그림 또는 글로 표현해보자.

2. 만약 배달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여 글로 적어보자.

<교사 참고자료>

[횡설수설/김광현] '배달의 민족'

유학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이면 깜짝 놀라는 게 몇 가지 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총 칼 맛을 걱정하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심의 안전,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면 당일 아니면 늦어도 다음 날이면 깔끔하게 끝내주는 초고속 서비스에 혀를 내두른다. 그중의 백미가 음식 배달 문화다. 24시간 즉발 치킨 짜장면 햄버거 피자는 기본이고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 1시간 내 배달이 안 되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배달 서비스 앱 1위인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독일계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된다. DH는 이미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인수한 터라 한국 음식배달업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음식 가방을 매단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녀서 후줄근해 보일지 모르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배달 앱에 총집약돼 있다. 음식점 검색 및 추천에서 음성 주문, 결제까지 인공지능(AI)을 통해 해결하고 있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개발해 시험 중이다. 로봇이 사람도 아니고 차도 아니어서 인도로 달려야 할지, 차도로 달려야 할지 제도가 미처 못 따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배달의민족' 지분 87%의 인수 금액은 4조8000억 원으로 국내 인터넷기업의 인수합병(M&A) 금액으로 사상 최대다. 최근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격으로 제시한 금액 약 2조 원의 2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배달의민족'은 익살스러운 이름이다. 배달은 고조선의 다른 이름인 배달(倍達)과 물건을 나르는 배달(配達)의 중의적 표현이다. 오토바이 택배에서부터 새벽 음식 배송까지 배달 문화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 '配達의 민족'이란 뜻으로 들려도 이상할 것이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배달주문 앱 이용자가 2500만 명, 2010년 시작한 '배달의민족'의 누적 주문량은 작년 말 4000만 건을 넘었다.

외솔 최현배 선생이 작사한 한글날 노래 1절 첫머리는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로 시작한다. 신용하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에 따르면 고조선의 첫 도읍지 '아사달'은 '밝달 아사달'이라고도 했다. '밝달'이 고조선 민족의 상징적 호칭으로 확대되면서 고조선 사람들을 '밝달' 사람이라고 불렀다. '밝달'을 한자로 음차 표기한 것이 '倍達(배달)'이다. 무일푼으로 음식점 전단 정보를 모아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도 안 돼 수조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으니 이 회사 대표 김봉진 씨와 직원들 역시 진취적인 배달의 자손이라 할 만하다.

[동아일보 2019-12-16]

커버스토리 배달이 진화한다

<어휘 Up>

천변: 냇물의 주변.

정복: 다루기 어렵거나 힘든 대상 따위를 뜻대로 다룰 수 있게 됨.

확보: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음.

노동조합: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근본: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이 되는 것.

대책: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

<발문>

1. 배달 외에도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리빨리’ 문화는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자.
2. 배달 리뷰에 관한 소비자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올바른 배달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발표해보자.

<교사 참고자료>

“총알배송시대 근로환경 급변... 새 안전망 만들어야”

“진짜 목숨 걸고 달리는 겁니다.”

배달기사 A 씨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기 전에 숨부터 크게 한 번 들이쉬곤 배달 시간에 쫓겨 곡예운전을 하다 보면 스스로도 아찔하다고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A 씨는 “위험한 건 알지만 기름값, 식대, 보험료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플랫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종사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택배기사, 배달원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고 기업들 역시 플랫폼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목표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성장 산업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산업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그 이코노미’ 그늘, 택배 과로사

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과로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기사는 지난해 15명, 올해는 3월 말까지 4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택배기사들은 파업을 벌이며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7일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전체 조합원 6400여 명 중 1907명만 참여하는 부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배달원들은 근로 시간에 비해 처우가 낮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상황이다. 처우가 낮다 보니 과로를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운전은 무리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시간 근무에 노출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문제가 됐지만,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개정했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택배기사, 배달원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가 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 확대만으로 플랫폼 근로자의 산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도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많은 기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택배기사 B 씨는 “인프라를 개선하든지, 산재 처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산재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시장 장악을 위해 속도 경쟁을 벌여온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규제보다 플랫폼 기업의 자발적 노력 유도해야

기그(gig) 근로자들의 안전과 지위를 강화하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배달원 등 플랫폼 근로자를 피고용자로 재정의하며 이들의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배달원들의 죽음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부른 규제보다 기업들

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대표적 플랫폼 기업들은 제도 변화에 앞서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쿠팡은 초창기부터 직고용을 통해 근로자들의 산재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직고용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돼야 한다. 이 때문에 쿠팡의 산업재해 신청과 승인 건수는 지난해 각각 782건, 758건으로 CJ대한통운(신청 26건, 승인 24건) 등 주요 택배물류 기업보다 많았지만 그만큼 산재 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투명하게 운영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0월 플랫폼 기업 중 처음으로 플랫폼 종사자 노동조합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맺었다.

[동아일보 2021-05-10]

커버스토리

배달의 미래 우리가 이끈다

<어휘 Up>

자율주행: 운전자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량 스스로 도로에서 달리게 하는 일.

추진: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감.

탑재: 배, 비행기, 차 따위에 물건을 싣다.

스타트업: 설립한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

정박: 배가 닻을 내리고 머무름.

이착륙장: 비행기, 헬리콥터 따위가 안전하게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설비된 곳.

규제: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발문>

1. 원하는 곳 어디든 배달이 가능하다면? 어디에 무엇을 배달하고 싶은지 상상하여 그 이유와 함께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자.
2. 다양한 분야에서 발명되는 로봇. 정확성이 높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간의 일자리는 위협받고 있다. 로봇의 발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보자.

<교사 참고자료>

“배달 왔습니다”“음식 나왔어요”... 일상 공간 로봇이 누빈다

성큼 다가온 서비스로봇의 시대

“배달 왔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수령해 주세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라이더 대신 로봇이 기다린다. 고객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자 음식을 실은 적재함이 열린다. 음식을 받고 확인 버튼을 누르자 로봇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돌아간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도입된 ‘실내 로봇 배송 서비스’의 모습이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우편, 서빙, 배달 등의 서비스를 로봇이 담당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12일 배달 플랫폼 서비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로봇이 아파트 각 가구 현관 앞까지 배달하는 로봇 배송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범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주상복합 아파트 ‘포레나 영등포’ 3개 동의 아파트.오피스텔 293가구 주민들은 총 3대의

배달로봇을 통해 주문한 물품을 전달받게 된다. 라이더가 1층에 대기하고 있던 배달로봇 ‘딜리타워’에 음식을 전달하고 주문자의 전화번호(안심번호)를 입력하면 로봇 배달이 시작된다.

딜리타워에는 엘리베이터, 공동현관과 연계된 사물인터넷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됐다. 1층 공동 현관문에 다가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로봇이 관제센터에 신호를 보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해당 층으로 이동한다.

엘리베이터가 복잡할 땐 로봇이 “좀 타겠습니다. 비켜주세요”라고 말하거나 아예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등 고도로 지능화된 기술이 적용됐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로봇을 통해 입주민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고, 배달원은 배달 시간을 줄여 더 많은 배달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주거지는 물론 사무실 건물까지 배달로봇의 활용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서비스들이 로봇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배달 외에도 대표적인 분야가 호텔, 사무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서빙이나 우편 등이다.

SK텔레콤은 10여 대의 로봇이 호텔 식당이나 로비를 돌아다니며 고객이 주문한 음식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AI 서빙로봇을 8월부터 대구 인터블로그호텔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KT도 4월 사옥에서 근무하는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편물을 배송하는 ‘AI 로봇 우편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KT 관계자는 “직접 사람을 마주해야 하는 서비스 로봇은 사물을 판단하는 센서 기술, 음성인식 기술, AI 기술 등이 적용돼 단순 반복 작업을 돕도록 프로그래밍 된 산업용 로봇보다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서비스로봇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23%의 성장세를 보이며 121억 달러(약 13조8847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서비스로봇 시장이 커지면서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로봇 운영을 용이하게 돕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네이버는 올해 하반기 완공을 앞둔 제2사옥을 ‘로봇 친화형 건물’로 만들기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 5세대(5G) 특화망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KT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DB손해보험과 함께 AI 서비스로봇 전용 보험 상품도 개발 중이다..

맞춤칼럼

선진국 대한민국

<어휘 Up>

개발도상국: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개발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진 나라.

선진국: 다른 나라보다 정치·경제·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

위상: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외신: 외국으로부터 온 통신.

유리천장: 여성이나 소수민족 출신자들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반문: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되받아 물음. 또는 그 물음.

오일머니: 산유국이 원유를 팔아 벌어들인 외화.

최빈국: 일 인당 국민 소득이 적고 대외 부채 잔액이 많은 가난한 나라..

<발문>

1. 내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란? 자신이 원하는 선진국의 모습과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발표해보자.
2.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지,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적어보자.

<맞춤칼럼 정답>

1. ①선진국 ②불평등 ③소득 ④행복
2. ③

<교사 참고자료>

文대통령 “개도국→선진국 지위 격상 韓 유일...국민 자부심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 지위를 ‘그룹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 바꾸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연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손실보상법)’이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 것에 대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2021-07-06]